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라카타 시장인 후시미 다카시입니다.

4월 7일부터 오사카부에 발령되고 있었던 “긴급사태선언”이 5월 21일에 간신히 해제되었습니다.

초중학교의 아동 학생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전국적인 감염 확대를 받아 3월 2일에 갑자기 학교가 휴교가 되어 친구와 만날수도 없고 학교에서 공부할수도 없는 등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호자의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앞이 보이지않는 상황에서 헤아릴수없는 긴장과 불안이 있던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협력에 다시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시내의 감염은 적어져 오고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감염확대가 염려되고있으니 치료약이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장기에 걸쳐 이 바이러스와 함께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마스크의 착용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확보하고 세세하게 손을 씻는등을 실시해주세요. 자신은 무증상이어도 가족이나 친구 등 친밀한 사람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감염하고 있으면 ...” 라는 의식으로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한 대처를 항상 유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한편 아동 학생 여러분은 장래 사회에 나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체력 사람과의 관계 쪽 등을 몸에 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도 계속의 감염 방지의 대처와 학교의 재개를 병행해서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히라카타시에서는 초중학교의 6월 15일의 본격 재개를 향해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기에는 확실히 감염 예방을 실시하고 급식이나 클럽 활동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준비 기간으로서 6월 1일부터 분산 등교에 의한 단축 수업으로 해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3개월 가까이 걸쳐 휴교가 되었으므로 수업 등 학교 활동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연을 되찾기 위해서 토요일의 수업이나 여름방학 겨울방학의 단축도 실시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동 학생 여러분에게는 기대하고 있던 장기 휴가가 단축된 것은 유감일 것 같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불안한 기분으로부터 등교할 수 없는 아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택에 있으면서도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학교의 모두와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할 수 있도록 PC나 태블릿 등을 활용한 학습 환경의 정비를 한층 더 제대로 진행시켜 나가는 생각입니다.

또 히라카타시로서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서포트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만약 학교에 상담하기 어려울 때는 “시장에게 제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써주시면 저한테 직접 도착합니다. 꼭 이용해 주세요.

학교가 재개할 수 있었을 때에는 여러분의 활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 주세요. 학교에 밝은 소리가 울려 웃는 얼굴 가득히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